

광주 서구 ‘착한가게’ 3230곳… 전국 기초지자체 2위

‘착한쿠폰’ 도입 효과… 복지·상권 활성화 선순환 구조
소상공인 등 자발적 참여… 나눔문화 확산 상징 이정표

광주 서구가 ‘착한가게’ 확산을 이끄는 전국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착한쿠폰’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며 자발적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구 내 착한가게는 3230개소(해지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에 해당한다. 광주 지역 전체 착한가게 6658개소(해지 포함) 가운데 절반가량(48%)이 서구에 집중돼 있다. 남구 1342개소, 북구 763개소, 동구 757개소 등이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의열매 대표 기부 프로그램이다.

서구는 단순한 참여 독려를 넘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나눔이 지역 안에서 순환

하도록 구조화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서구가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착한쿠폰’ 사업이다. 기부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이를 지역 내 착한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복지 지원과 골목상권 소비를 동시에 연결했다.

지원금이 다시 지역 상점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복지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선순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해 7월 양동전통시장에 위치한 ‘1969 양동통닭’이 전국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5만호로 선정되며 상징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서구는 이를 계기로 양동전통시장을 ‘광주 제1호 착한거리’로 조성하며, 전통시장과 나눔 문화를 결합한 지역 공동체 모델을 구축해왔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서구와 함께 3억5000만원 규모의 착한쿠폰 사업을 지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내 ‘1969 양동통닭’이 전국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5만호에 가입했다. 이날 착한거리·시장 조성 기념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도 진행됐다.

속 추진할 계획이다.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동시

에 도모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서구는 착

한도시 브랜드 선포 이후 정책적 의지와 주민 참여가 맞물리며 전국에서 주목받는 상생 복지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자

발적 나눔이 지역경제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신문윤리강령 준수…취재원 보호·공정 보도 준수를”

광남일보 임직원 대상 교육

편집·광고·판매 강령 주문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26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3층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송배 사장·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취재원 보호를 비롯해 공정보도 준수, 독창적 제목 뽑기를 주문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초만에 정해지며 그 첫인상은 장기간 아니라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취재기자는 항상 단정찬 용모와 몸가짐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읽기 편한 지면 제작을 위해서는 취재기자와 편집자 간 상호소통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주주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남일보는 26일 오후 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가졌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규정 광고 단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위 사실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치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치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적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송배 사장은 “언론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생산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광남일보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윤리강령은 신문의 자제를 천명하고 공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표명하고 있다. 1923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에 의해 처음 채택됐고, 국내에서는 1957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제정했으며, 1963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추가 채택,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강령으로 삼았다. 송태영 기자 styl1235@

이주언 변호사,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

장애인 기본권 확장·공익법 활동 공로 등 인정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제7회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 수상자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주언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변호사회 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9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홍남순 변호사 인권상’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사회정의 실현에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공익 활동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된다.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소송과 입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으



본권 보장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또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로 불린 인강원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동등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2022년부터는 부산 지역 유일의 공익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권뿐 아니라 이주, 아동, 빈곤,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연구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부산 지역 공익법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문학적 열정 잊지 말고 작품활동 하길”

광주전남작가회의 정기총회…신인상 시상식 등 다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미승)는 2026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성황리 열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보고와 수입·지출 결산, 감사보고서,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각 지부 2025년 사업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신인회원 소개, 작가지 신인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오월문학제와 작가 38·39호 발간 제27회 섬진강 문학학교, 제20회 김현문학축전 및 무안공향 참사 2주기 행사 참여(목포작가회의), 여수 항쟁위령제 및 남도문예트레닝스 특화사업(여수작가회의), 화원 창작의욕 고취 및 분교활성화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신인상 시상식에는 수상자로 선정된 정인주

씨가 단상에 올랐다. 정인주씨는 신인상 공모에 ‘초파리의 변명’ 등 3편을 공모해 신인상 수상자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또 회비 인상안 제안 건 등 예민한 문제도 이날 처리됐다.

신인회원으로 김영숙 정희정 등 17명이 새롭게 작가회의 식구로 합류해 이날 정기총회 회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난해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던 여수작가회의는 우동식 지부장 뒤를 이어 강경자 시인이 신인회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 점 역시 보고했다. 긴급 제안에서 이대흠 시인(장흥)은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몇몇 사람들 할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고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고돼 호응을 얻었다.

김미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긴دت. 짧은듯 1년이 지나갔다. 12·3계업 이후



광주전남작가회의는 2026년도 정기총회를 지난 24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5년은 엄혹한 시기였다. 지금 모든 사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느라 시끄러웠지만 작가회의도 많은 일을 했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었다. 가을쯤 ‘문학의 밤’ 행사를 계획했으나 여러 여건으로 무산돼 아쉬웠다”고 소회를 밝히며 새로운 해 각오를 다졌다.

이어 김준태 고문(시인)은 축사를 통해 “왜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 ‘왜 쓰지 않으면 안되느냐’ 등을 늘 고민해야 한

다. 고향은 나를 낳아준 곳 뿐만 아니라 고향을 통해 생애는 창작열을 다독인다. 지금은 AI시대다. AI는 결코 필요한 눈을 옮겨 담을 수 없다”고 했고, 김정운 고문(시인)은 “지난해 회원들이 작품집들을 많이 펴냈는데 올해도 문학적 열정을 잊지 말고, 작가회의의 정체성도 잃지 않는 한편, 올 한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칠 기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무안군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겨울송어 축제 현장에서 ‘농심천심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 무안군지부, ‘농심천심운동’ 캠페인

무안 겨울송어 축제서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활동

농협 무안군지부는 최근 무안군 해제면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린 제3회 무안겨울송어 축제 현장에서 ‘농심천심운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무안군지부 임직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무안 대표 특산물인 양파를 직접 전달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최평강 농협 무안군지부장은 “농심천심운동을 통해 농업인의 정성과 마음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와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농심천심운동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송배 기자 photo25@gwangnam.co.kr